

내가 바라는 미래: 한국에서 펼쳐질 나의 눈부신 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 성장해 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언어도 낯설고 모든 것이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감사해주는 가족들과 이웃들 덕분에 이제는 한국이 제 마음속 진정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만의 화려한 미래를 예쁘게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어 실력을 더욱 키워 가족, 이웃들과 마음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 언어를 잘하게 되면 자녀 교육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와 함께 한국어 동화책을 읽고, 학교 생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며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든든한 엄마가 되는 것이 저의 큰 목표입니다. 

또한, 나만의 역량을 개발하여 사회에 기쁜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차근차근 제 직업을 갖고 전문성을 쌓아갈 것입니다.  특히 제가 가진 이중언어와 다문화적 강점을 살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웃들을 따뜻하게 돕는 보람찬 일을 꼭 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마음껏 즐기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길을 걷고,  여름에는 푸른 제주도 바다로 떠나며,  가을과 겨울에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아직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저의 꿈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 세상에 밝은 빛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정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가 한국어도 할 줄 몰랐다. 외국에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와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일이 훨씬 많았을 뿐만 아니라 더 힘들었다.

가장 먼저 만난 문제는 집을 구하는 일이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니까 부동산에 가서 파파고로만 의사소통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결국 인터넷의 중국어 앱에서 계약기간이 남은 중국인 세입자가 내놓은 집을 구하게 되었다. 그때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사한 다음 날에 관리원이 전 세입자 때문에 위층에 사는 할머니와 함께 찾아오셨다. 두분의 발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말투와 표정을 보니 화가 난 것 같았다. 나는 곧 파파고로 내가 전 세입자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니까 두 분은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떠났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날 만났던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셨다. 할머니께서는 다정하게 웃으시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나에게 건네주시면서 먹어보라고 하시고 바로 올라가셨다. 내가 상자를 열어보니 반찬 두 가지와 따뜻한 잡채가 들어 있었다. 그때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다음 날 과일을 사서 할머니께 가져다드렸는데 할머니께서는 "내가 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네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텐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엄마라고 생각해. 엄마가 자식한테 먹을 것을 좀 해 주는 게 뭐가 대수겠니! 앞으로 과일도 사오지 마.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잖아." 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엄마'라는 말이 나를 깊이 감동시키기는 했지만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냥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그 후에 한국어 수업을 다니면서 조금 소통이 가능해졌다.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짧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께서는 계속 맛있는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도 알려 주셨다. 나는 계속 과일이나 간식을 사서 찾아뵙고 서투른 한국어로 몇 마디 나누고 기분이 좋게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언어는 오히려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었다.

물론 집에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되어서 할머니와 멀어지게 된 게 아쉬웠다. 그런데 시간이 있을 때 과일을 들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돌아올 때 할머니께서 주신 반찬을 들고왔다. 한국에서 처음 받은 이 따뜻한정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유지하기를 바란다.

가족의 의미

오키 마사미 (도쿄 B)

가족의 의미를 인터넷으로 찾아 봤더니 함께 살지 말지보다 서로를 지탱하며 책임을 나누고 심리적인 유대를 맺는 공동체라고 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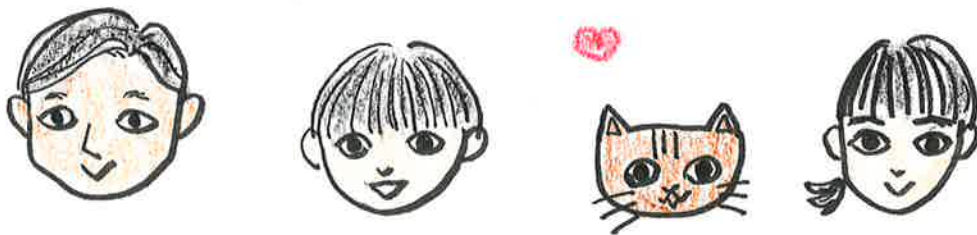
올해는 제가 엄마가 된지 5년째입니다.

아직 엄마가 되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들으면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들은 너무 귀엽고 다치지 않는을까 감기를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돼서 현실적으로는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둘이서 자주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매일 같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 하는 남편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날 한국생활에서 잘 안되는 일이 있어서 아들 앞에서 엄마는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가 없으면 눈물이 나버리니까 몰래 따라갈게라고 했습니다. 같이 안 가고 뒤에서 따라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웃었는데 아들에게는 제가 단 한 사람의 엄마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걷는 것은 언제까지일까 엄마, 같이 놀자라고 해 주는 것은 언제까지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든든하지 않는 엄마인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할 뿐이다. 그리고 항상 다정하고 온화하는 남편에게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서 어느새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양이도 가족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제 어디 서나
늘 변함 없이 제 곁을 지켜준 남편입니다.
우리가 결혼해 함께 삶을 시작한 이후로, 그는 그저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제가 지치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느라 힘들어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어휘와 문법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 우리 함께 해보자.” 그는 매일 저년 퇴근 후에 저와 한국어
회화를 연습할 시간을 내곤 했습니다. 그의 보살핌과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배우고,
또 그것을 즐길 용기를 얻었습니다.



주말이면 저희는 늘 함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냅니다. 제가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제 마음의 짐이 한 걸 가벼워지고, 우리의 웃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게 남편은 광활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도록 저를 이끌어 주는 믿음직하고 흔들림
없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By: Aam Maryamah